



발행인 배규식
편집인 성재민
편집교정 정철

자료문의 KLI 학술출판팀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한국노동연구원
TEL 044-287-6088
FAX 044-287-6089

발행일 2018년 12월 6일

2018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9년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044-287-6603(jwkim@kli.re.kr)

15~64세 인구 감소, 건설 및 제조업의 생산둔화, 경기둔화까지가 이어지면서 2018년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1~10월 기준)대비 97천 명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전년동기대비 0.1%p 감소한 60.7%, 실업률은 0.2%p 증가한 4.0%를 보였다. 20대 후반 청년층의 고용이 회복되고 있고, 경력단절연령대(35~44세) 여성의 고용이 개선되고 있지만 40, 50대의 고용률이 감소하고 실업자가 증가하였다. 제조업에서는 자동차, 조선업계의 구조조정, 섬유 및 의복, 고무 플라스틱 등 여러 산업에 걸친 생산둔화 영향으로 연관 산업의 고용이 빠르게 감소한 데 이어 하반기부터는 전통 내수서비스업(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위주로 고용이 위축되고 있다. 내년 경기도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국은행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전망하고 있어 2019년 취업자는 129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I. 2018년 노동시장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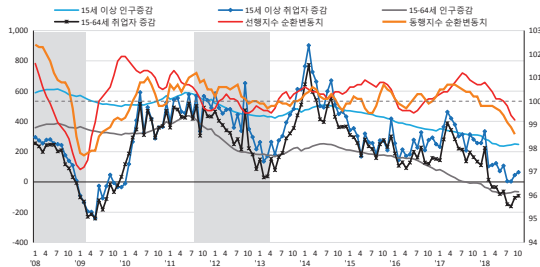
2018년 1~10월 평균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97천 명 증가해 2017년 동기간 328천 명 증가한 데 비해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초 기저변동, 15~64세 인구의 빠른 감소 영향으로 증가폭이 축소된 모습을 보이던 고용은 건설 및 제조업의 생산둔화, 경기둔화가 이어지면서 현재까지도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실업자는 2018년 1~10월 평균 전년동기대비 54천 명 증가했고(2017년 10천 명 증가), 실업률은 0.2%p 증가한 4.0%였다. 올해 실업 증가의 특징은 지난 몇 년간 실업률 증가의 원인이 되었던 청년층 실업률은 감소한 반면,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자영업자) 등 올해 고용이 둔화된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 주로 40, 50대 연령층에서 실업자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2018년 1~10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97천 명 증가**

[그림 1]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및 인구 증감 추이 (15세 이상 및 15~64세)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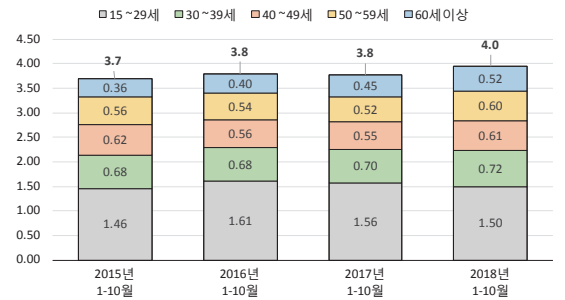


실업률에서 40, 50대가 차지하는 비중 증가

주: 음영은 경기수축기임.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2] 실업률에서 연령대별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 (1~10월 평균)

(단위: %p)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1> 주요 고용지표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기대비)

		2016. 1~10	2017. 1~10	2018. 1~10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43,578	43,907	44,159
	(증가수)	(372)	(328)	(252)
	경제활동인구	27,420	27,757	27,907
	(증가수)	(262)	(337)	(150)
	경제활동참가율	62.9	63.2	63.2
	취업자	26,380	26,708	26,804
	(증가율)	(0.9)	(1.2)	(0.4)
	(증가수)	(224)	(328)	(97)
	(남성)	(72)	(137)	(3)
	(여성)	(151)	(191)	(94)
	고용률	60.5	60.8	60.7
	(남성)	(71.2)	(71.2)	(70.9)
	(여성)	(50.3)	(50.8)	(50.9)
	실업자	1,040	1,049	1,103
실업률	3.8	3.8	4.0	
(남성)	(3.9)	(3.9)	(4.0)	
(여성)	(3.7)	(3.6)	(3.9)	
15~64세	비경제활동인구	16,159	16,150	16,252
	(증가수)	(110)	(-9)	(102)
	생산가능인구	36,835	36,862	36,798
	(증가수)	(143)	(27)	(-64)
	경제활동참가율	68.7	69.3	69.4
	고용률	66.0	66.6	66.6
	(남성)	(75.8)	(76.2)	(75.9)
	(여성)	(56.1)	(56.8)	(57.1)
	취업자	24,312	24,548	24,501
	(증가수)	(148)	(237)	(-4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II. 2018년 노동시장 부문별 평가

1. 40대, 50대 중심으로 나타난 고용둔화

40대는 임시직(56천 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34천 명)에서 주로 감소하고 있는데 임시직은 제조업(생산직 중심), 도·소매업(판매직 중심)에서 주로 감소하였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건설업(생산직 중심), 도·소매업(판매직 중심)에서 주로 감소하였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중심으로 고용이 둔화되었다(240천 명). 40대 실업자는 전년동기대비 19천 명 증가했는데, 전직 제조업 실업자가 7천 명 증가하여 제조업의 부진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50대는 제조업(3천 명 증가)과 건설업(13천 명 증가)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 상용직은 129천 명 증가하여 전년도와 유사하지만, 임시·일용직 취업자 및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감소는 감소하였다(각각 25천 명, 28천 명, 36천 명 감소). 50대 실업자는 22천 명 증가했는데 주로 일용직 실업자(16천 명 증가)로 건설업, 생산직 위주로 나타나 올해 제조업 및 건설업의 고용둔화를 반영하고 있다.

2. 20대 후반 고용률 증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취업자 감소는 주로 보건 및 사회복지(1~10월 평균 40천 명 감소), 음식·숙

40대 고졸 이하 취업자 감소

20대 후반 보건 및 사회복지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

〈표 2〉 연령계층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증감			생산가능인구 증감		
	2016. 1~10	2017. 1~10	2018. 1~10	2016. 1~10	2017. 1~10	2018. 1~10
전체	224	328	97	372	328	252
15~29세	51	8	-17	-13	-78	-134
15~19세	-2	9	-46	-53	-141	-165
20대	53	-1	29	40	64	31
20~24세	3	-28	-80	10	-18	-65
25~29세	50	27	109	31	81	97
30대	-59	-29	-53	-109	-102	-117
30~34세	-156	-141	-84	-175	-189	-149
35~39세	98	112	31	66	87	32
40대	-56	-47	-114	-87	-79	-99
40~44세	-119	-139	-107	-164	-149	-134
45~49세	63	92	-7	77	70	35
50대	78	155	47	120	96	71
50~54세	-92	3	-34	-105	-22	-23
55~59세	171	152	81	225	118	95
60세 이상	209	241	233	460	491	530
60~64세	133	150	89	232	190	215
65~69세	53	8	76	110	-9	125
70세 이상	23	83	69	119	311	19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박업(26천 명 감소)에서 나타났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고용률 감소폭은 완화되고 있다(15~24세 3분기 1.6%p 감소, 10월 26.2%로 전년동월대비 동일).

20대 후반 취업자는 109천 명 증가했고, 실업자 4천 명 감소, 실업률도 9.0%로 0.5%p 감소하였다. 산업별로는 보건 및 사회복지(1~10월 평균 32천 명 증가, 상용직, 전문직 중심), 도·소매업(19천 명 증가)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제조업(1~10월 평균 -11천 명, 임시직·장기 기계 직종 위주), 사업지원임대업(-9천 명), 교육서비스(-10천 명)에서는 감소하였다.

3. 경력단절연령대 기혼 여성 고용률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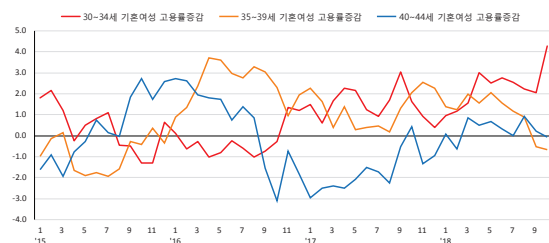
30대 초반의 기혼(유배우자) 여성은 고용률이

52.3%로 2.3%p 증가하여 노동시장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30대 초반 미혼 여성은 5천 명 증가했는데 취업자는 6천 명 감소하여(기타 개인서비스 위주), 고용률은 1.5%p 감소했다.

30대 후반 및 40대 초반 기혼 여성의 1~10월 평균 전년동기대비 고용률이 각각 1.1%p, 0.3%p 증가했다. 상용직 취업자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최근 고용률이 다시 감소하고 있어 실제 이 증가세가 향후에도 지속될지는 불확실성이 커 보인다.

〈그림 3〉 30~44세 기혼 여성의 고용률 증감 추이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4. 65세 이상 고령층의 노동시장 진입 활발

경제활동의 주축인 15~64세 인구의 감소와 함께 65세 이상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취업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1~10월 평균 고용률 2016년 30.7%, 2017년 30.7%, 2018년 31.3%). 높은 경제활동수준을 나타냈던 베이비붐 세대(특히 전후출산세대)가 은퇴하면서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올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규모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0대 후반은 보건·복지업에서 주로 증가했으며, 제조업, 부동산업에서도 취업자가 1만 명 이상 증가했다. 70세 이상은 보건·복지업, 공공행정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비중이 60대 후반보다 높다. 2019년에도 노인일자리사업의 정부 예산이 높아짐에 따라 내년에도 고령층 경제활동은 활발한 양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30~44세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활발

고령층의 노동시장 진입 활발

5. 고용둔화에 중요하게 작용한 임시, 일용,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감소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

상용직 증가 흐름은 지난해에 이어 지속되고 있으나, 임시·일용직이 크게 감소하면서 임금근로자는 1~10월 평균 전년동기대비 142천 명 증가해 전년보다 둔화된 모습이다(2017년 265천 명 증가).

임시직의 감소는 제조업 생산이 둔화하면서 83천 명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도·소매업의 임시직 감소폭도 커지고 있다(3분기 전년 동기대비 -44천 명, 10월 -66천 명).

일용직은 전년동기대비 72천 명 감소했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일용직 감소폭은 완화되어 10월에는 13천 명 감소하였다(건설업 +33천 명, 숙박 및 음식점업 -7천 명, 도·소매업 -23천 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10월 평균 53천 명 증가했다. 3분기까지 농림어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에서 증가를 이어왔다. 다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노동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특징이 있는데, 10월에는 4천 명 감소해 증가 국면을 마감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10월에는 주로 건설업(-13천 명)과 숙박·음식점업(-24천 명)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인 8월부터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기존 임시, 일용직 감소에 더해 상용직과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다소 위축된 흐름을 보이고 있어 경기둔화 국면에서 최저임금 관련 부정적 영향이 가중될 가능성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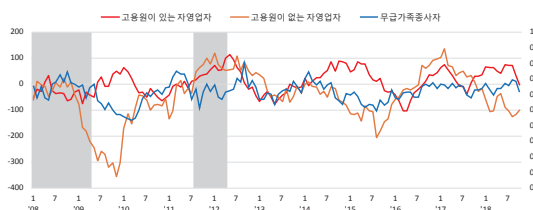
제조업 고용둔화 국면 지속

자동차, 섬유 및 의복,
기타운송장비 등의 생산 및
고용둔화

생산직업군 감소 지속

[그림 4] 비임금근로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주: 음영은 경기수축기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현황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16. 1~10	2017. 1~10	2018. 1~10
전체	224	328	97
임금근로자	292	265	142
상용직	365	361	346
임시직	38	-139	-132
일용직	-111	43	-72
비임금근로자	-69	63	-45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38	22	53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2	57	-88
무급가족종사자	-32	-16	-1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6. 제조업 고용 감소

2017년도 내내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던 제조업 취업자가 2018년 1월 106천 명 증가한 이후 증가폭이 줄어들어 4월부터 감소 전환한 결과, 1~10월 평균 46천 명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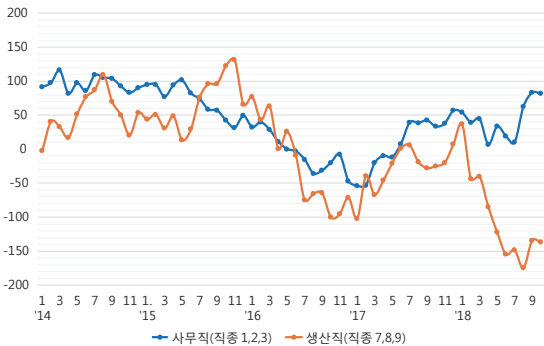
제조업은 상반기에 나타난 급격한 취업자 감소세(7월 저점 127천 명 감소)에서 두 달 연속 다소 완화된 모습(10월 45천 명 감소)이나 여전히 둔화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조선업이 있는 기타운송장비, 구조조정이 있었던 자동차가 부진한 가운데 섬유 및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건설과 조선의 영향을 받는 금속가공업, 자동차의 영향을 일부 받는 고무·플라스틱 제조업도 둔화된 모습이다.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부품 제조업에서 올해 고용증가가 나타났으나, 반도체를 제외한 가전 등 국내 생산둔화로 향후 고용개선 지속여부는 불투명하다.

올해 제조업 고용의 또 다른 특징은 화이트칼라 직업군은 고용이 증가하나 생산관련 직업군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은 둔화되어 있으나 제품개발, 마케팅, R&D 등 본사기능은 활발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림 5] 제조업 전체 사무직 및 생산직 취업자 증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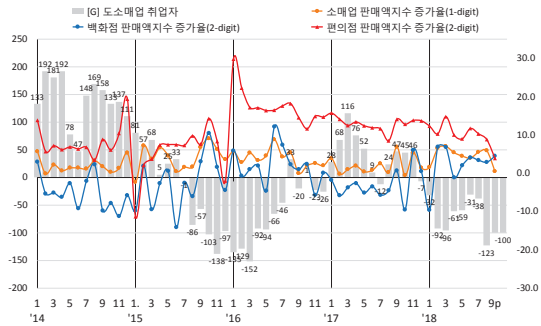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6] 도·소매업 취업자 증감 및 업태별 소매판매역지수 증가율(불변지수, 2015=100)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_____, 「서비스업동향조사」, KOSIS.

7. 전통 내수서비스업 중심으로 나타난 서비스업 고용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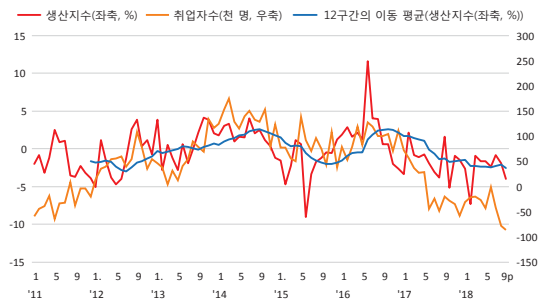
먼저 고용이 증가한 산업부터 보면, 생산이 활발한 보건 및 사회복지업,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컸고, 정규직화, 공무원 채용,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이슈가 있는 공공행정부문에서도 고용증가가 나타났다. 정보통신업(47천 명)은 모바일 소프트웨어 개발 등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생산이 9월까지 평균 3.5% 증가했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2분기 16천 명, 3분기 20천 명)도 꾸준히 나타나 이 분야의 고용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보험업도 생산증가(6.4%)와 함께 고용(51천 명)이 증가했는데, 은행권보다는 주로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내수서비스 부문인 도·소매, 숙박·음식을 포함해 교육서비스,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임대서비스업은 고용이 감소했다. 부동산업도 감소했는데(-15천 명) 이는 건설경기 둔화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며,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천 명 증가)은 제조업 부진, 건설업 둔화 등의 영향으로 다소 고용이 둔화된 상태이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2018년 1~10월 평균 73천 명 감소했다. 2017년 동기간 45천 명 증가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인데,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56천 명)가 많이 감소했고 임시직(-32천 명), 일용직(-26천 명) 고용도 부진했다. 기존 고용을 이끌었던

[그림 7]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증감 및 음식점 및 주점업 생산증가율(불변지수, 2015=100)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_____, 「광업제조업동향조사」, KOSIS.

편의점, 기타전문소매점 등이 주축한 가운데 고용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은 면세점, 온라인 중심의 소매 판매 개선이 고용증가로 귀결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의 업황 부진도 고용에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24천 명)는 최근 감소폭(10월 -97천 명)이 확대되었다. 이 산업의 고용 규모와 변화는 숙박업보다는 음식점 및 주점업에 의해 좌우되는데, 2016년 이래 음식주점업 생산이 하향추세에 있는 것, 특히 대부분의 음식점업이 속한 한식 음식점업과 외국식 음식점업 생산이 계속해서 감소세에 있는 것, 비알콜 음료점 생산도 다소 둔화양상을 보인 것 등이 고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임대서비스업 고용은 2분기(-33천 명)부터 크게 감소폭(3분기 -116천 명)을 늘

전통 내수서비스업(도·소매, 음식숙박 등) 위주의 고용감소

사회서비스분야(보건복지, 공공행정) 취업자 증가

리면서 1~10월 평균으로는 58천 명 감소했다. 주로 60세 이상(-33천 명), 단순노무직(-36천 명), 기능원(-15천 명)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이 업종의 기능원에는 건설업과 제조업에 관련된 파견 직종이 포함되어 있어서 두 업종의 최근 상황을 반영한 고용감소가 일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단순노무직은 대부분 청소 및 경비관련 용역, 파견이어서 정규직화와 관련된 현상일 수 있겠다.

〈표 4〉 서비스업 세부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2016. 1~10	2017. 1~10	2018. 1~10
서비스업	299	232	46
도매 및 소매업	-70	45	-73
운수 및 창고업	0	-26	1
숙박 및 음식점업	97	6	-45
정보통신업	7	4	47
금융 및 보험업	3	-11	51
부동산업	18	62	-15
전문·과학 및 기술	52	-8	3
사업시설관리 등	66	-17	-58
공공행정·국방	60	49	59
교육서비스업	22	56	-65
보건업 및 사회복지	80	63	118
예술·스포츠	-28	22	19
협회 및 단체, 수리	0	-6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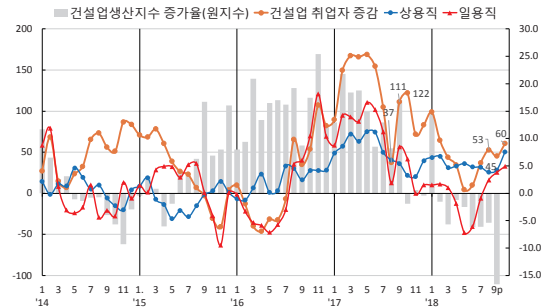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8. 건설업 취업자 둔화

2018년에는 건설수주가 2분기 9.2%, 3분기 6.4% 감소가 예상되는 등 전반적인 건설업 업황이 둔화세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취업자 증가 규모도 2분기 16천 명 수준으로 까지 떨어졌지만 3분기에는 다시 45천 명으로 커지면서 아직까지는 하반기 공사로 전문건설업 등에서 고용증가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건설수주와 건설기성의 시차가 약 1년 반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건설수주의 감소는 2019년 업황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림 8〕 건설업 취업자 증감(좌축)·생산증가율(우축)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____, 「건설업경기동향조사」, KOSIS.

III.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고용전망

한국은행은 2018년 경제성장률(연간) 전망치를 1월 3.0%, 4월 3.0%, 7월 2.9%, 가장 최근인 10월에는 2.7%로 소폭 하향조정하여 발표하였다. 동시에 2019년 경제성장률도 2.7%로 예측하면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전망을 내놓았다. 금년 중에는 설비투자(-0.3%) 조정이 계속될 것이며 민간소비(2.7%)와 수출(3.5%)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았고 2019년에도 수출(3.2%)과 민간소비(2.7%) 중심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 전망했다.

부문별로 보면, 최근 들어 제조업 생산지표가 전년동월비로 볼 때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조선업 경기가 올해 말 저점에 도달할 것이 기대되고 있으며 R&D, 마케팅, 제품개발 등 제조업 본사기능의 활발함을 보여주는 화이트 칼라 고용이 올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제조업 고용이 올해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제조업 특성상 미중 무역마찰에 따른 중국 성장세 향방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 내년도 제조업 고용증가 가능성을 상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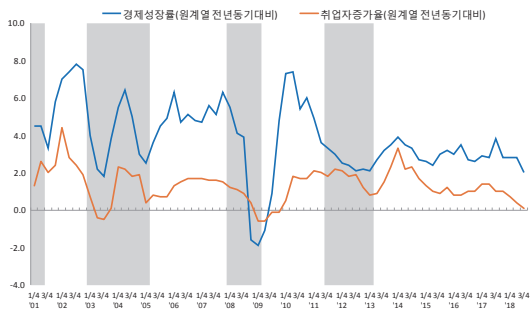
편의점, 한식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등 금융위기 이래 도·소매와 숙박·음식점업의 고용성장을 이끌었던 업체들이 포화상태에 도달한 현재 상황에서 경기둔화가 지속되는 한 이들 전통 내수서비스 부문에서 고용성장이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건설 경기 부진에 따른
건설업 고용둔화

제조업 고용은 미중 무역 마찰 등
대외여건이 변수

[그림 9] 경제성장률과 취업자증가율 추이

(단위 : %, 전년동기대비)



주: 음영은 경기수축기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호

커피전문점 확대를 이끈 선호 변화나 맞벌이 증대로 인한 외식 증대, 소규모 가구화에 따른 집 근처 소비 증대 등 기존 트렌드는 존재하기 때문에 경기 향방에 따라 다소간의 개선 흐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하반기 공사가 진행되어 전문건설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 중인 건설업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고용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부문별로 볼 때 올해보다 고용에 큰 개선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경기여건을 보아도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을 비롯해 세계은행, OECD, 한국개발연구원 등의 전망이 올해보다 0.1% 내외의 감소와 증가 정도 수준의 전망을 보여 내년도 급격한 경기위축 가능성은 낮으나, 내년 경기도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아 고용을 크게 개선할 만한 힘으로 작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로장려금 확대 같이 노동공급을 자극하면서 소득, 소비 여건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이 전례 없는 규모로 크게 확대되고,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등 직접지원 프로그램의 예산지출이 내년에 좀 더 본격화되며, 여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내수여건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올해보다 더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에 근거해 내년도 취업자 수를 전망하면, 2019년 취업자는 129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예상되는 95천 명보다는 소폭 개선된 것이긴 하지만,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노동시

장 흐름이 지속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업률과 고용률도 올해와 동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위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점이 전제된 전망이어서 향후 미중 무역마찰 향배를 비롯하여 주요 선진국의 경제성장 하방 가능성이 위협요인으로, 정부의 추가적인 확장적 정책 노력과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자영업자 비용압박 완화 정책 등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최근으로 올수록 경기둔화가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되므로 자영업자의 비용압박을 개선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같은 직접지원 대책을 포함해 미세조정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건설업과 제조업을 비롯하여 임시일용직, 자영업 출신 실업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는 단기 일자리 대책과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이 꾸준히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인구 둔화를 감안하면 어디까지나 둔화된 흐름이지 금융위기 같은 위기나 참사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따라서 고용정책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에 중심이 있어야 한다. 포용성장의 핵심인 일자리 격차 완화, OECD 최고 수준인 저임금 노동시장 개선, 일가정 양립을 통한 우리 사회의 지속성 강화, 인구감소 시대에 중요한 해결책이 될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가 그런 예이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청년 실업의 경우 25~29세 고용률이 증가하는 등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문제의 근원인 일자리 격차 확대 문제를 다소라도 완화시키는 데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일시적 현상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경력단절이 크게 나타나던 35~44세 기혼 여성 고용률이 올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감소하는 등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히 요청되는 상황이다. 가장 핵심적인 정책수단은 결국 장시간 근로문화의 해결인 만큼 최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계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일가정 양립을 통한 우리 사회의 지속성 강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잘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이다.

**업태들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도소매, 음식숙박 등 내수서비스업
고용은 어려울 전망**

**내년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129천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

**전체적으로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노동시장 흐름 예상**

**자영업자의 비용압박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 필요**

**일자리 격차 완화, 저임금 노동시장
개선, 인구감소 대비 등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정책 요망**

〈표 5〉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고용지표 전망

(단위 : %, 천 명)

	2018			2019p		
	상반기	하반기p	연간p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제성장률	2.8	2.6	2.7	2.7	2.6	2.7
15세 이상 인구	44,115	44,250	44,182	44,355	44,489	44,422
경제활동인구	27,794	27,996	27,895	27,900	28,168	28,034
경제활동참가율	63.0	63.3	63.1	62.9	63.3	63.1
취업자	26,651	26,988	26,820	26,730	27,166	26,948
(증가율)	0.5	0.2	0.4	0.3	0.7	0.5
(증감수)	142	48	95	79	178	129
실업자	1,143	1,008	1,076	1,170	1,002	1,086
실업률	4.1	3.6	3.9	4.2	3.6	3.9
고용률	60.4	61.0	60.7	60.3	61.1	60.7
비경제활동인구	16,320	16,253	16,287	16,455	16,322	16,388

주 : *는 속보치, p는 전망치임.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고용지표는 동향분석실 전망치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호; 한국은행(2018.10), 「경제전망보고서」.